예비창업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전북대, 중기부 예비 · 초기 창업지원사업 모두 선정
실험실창업까지 38억 확보… 단계별 창업 지원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돼 10억6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초기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아우르는 창업지원 기관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전북대는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5년 연속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됐다.

또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전북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전담 멘토 등을 지원한다.

특히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교육, 투자, 판로, 경영자문, 네트워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내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자를 모집한다. 총 18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며 지원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나 고급 기술을 가진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대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올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까지 총 3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이로써 예비창업자와 창업 기업에게 창업 단계 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우리 대학과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필리핀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필리핀 교원 18명과 대표단 2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e-러닝 기술 전수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도교육청, 필리핀 교원 초청 연수

필리핀 교원 초청 정보화연수가 지난 27일부터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대표단이 29일 오후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향후 교류방향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필리핀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는 필리핀 교원 18명과 대표단 2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한 로미오 에스타라스 엔드라카 단장은 "해마다 컴퓨터와 정보화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전북교육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배우고 돌아가 필리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한국과 필리핀 간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단은 총 96시간의 연수를 받게 되며 멀티미디어 활용 등 정보화연수 37시간, IT 우수학교 및 기업체 견학 14시간, 문화체험 및 탐방 26시간, 기타 개강식 · 수료식 · 토론 19시간 등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선진 e-러닝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한국과 필리핀 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면서, "필리핀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를 통해 필리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육청은 필리핀 정보화 인프라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62대의 PC를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27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진행해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실습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30분 2층 강당에서 도교육청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정지,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을 통해 생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며 하임리히법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행하는 응급처치법으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최성수 교수(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강사로 나서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이어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하임리히법 실습 등 응급처치 요령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직원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안전매뉴얼 앱에서도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교육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선발 배드민턴팀이 전국소년체전 남자중학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선발 배드민턴팀, 전국소년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전북선발(완주중학교-정읍중학교) 배드민턴팀이 익산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중학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완주중학교(교장 조계복, 감독 윤미화, 코치 전으뜸) 배드민턴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9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와 4월 17일 경북 김천에서 개최된 '제57회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에서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선발팀은 제주사대부중팀을 3대0, 충남선발팀을 3대0, 경기선발팀을 3대0으로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전남화순중학교팀과 겨뤄 두 번째 단식만 내주고 3대1로 비교적 가볍게 이기고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완주중학교 김태립 선수는 작년에 이어 최우수선수상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전북선발팀은 완주중학교 김태립, 임관희, 박승민, 유준서 선수 4명이고 정읍중학교 김도윤, 현시원 선수 2명으로 구성됐다.

/장은성기자

달콤한 욕망 따라 떠나는 모험

전북대 박재영 교수, 포셋 소설 '플럼번' 첫 국내 소개

1920년대 뉴욕 할렘가를 중심으로 일었던 흑인문화 부흥운동인 할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제시 레드먼 포셋의 소설이 국내에선 처음 번역돼 소개된다.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사범대 영어교육과)에 의해서다. 포셋은 네 편의 소설을 썼지만, 아직 단 한 편도 우리글로 번역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포셋이 쓴 소설 중 하나인 '플럼번'(달섬)을 국내 처음으로 번역, 최근 출간했다.

이 소설은 흑인 혈통이지만 백인 외모를 지닌 주인공 안젤라가 유색인임을 감추로 욕망을 좇는 이야기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 미국은 아직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의 자리는 뚜렷이 구별됐다. 백인들은 피부가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우월한 사회적 위치를 영유할 수 있었지만 흑인은 잔인한 차별과 학대, 모욕을 당해야만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백인 외모의 안젤라는 흑인 연관성을 감추고 백인으로 살기를 시도한다. 부유한 백인 남자를 만나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바라는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 소설의 제목인 '플럼번'은 '플럼'과 '번'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플럼은 흔히 말린 자두를 지칭한다. 번은 햄버거 빵처럼 생긴 빵이다. 번 반죽 위에 플럼을 올리고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플럼번이 된다. 구수하고 달콤하고 감미롭다. 입에 침이 고이게 할 만큼 매혹적이다. 플럼번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자극한다.

이처럼 소설 '플럼번'은 안젤라가 달콤한 욕망을 따라 떠나는 모험을 묘사한다.

인종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이민자가 늘고 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저버리는 행위다.

다름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이 소설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런 세상일 것이다.

/장은성기자